

국제수로기구와 지명에의 관여

Adam J. Kerr

(국제수로국 사무총장)

<머리말>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가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국제수로기구는 현재 그 회원국이 63개국인 정부간 기관이다. 국제수로기구는 유엔 산하 단체가 아니다. 국제수로기구는 1921년에 형성되었으며, 국제수로기구의 본부인 국제수로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은 모나코에 위치해 있다. 국제수로국은 3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Directing Committee)를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부터 국제수로기구는 그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공식적 총회를 개최해 왔다. 국제수로기구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국가 수로 관청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 (b) 해도 및 해양 관련 문서상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본 목적 하에 일련의 구체적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해도를 작성한다던가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안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이 논문의 맥락 내에서 볼 때 국제수로기구의 총회 선언문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로기구는 자문적인 성격과 순수한 기술적 성격을 지닐 것이다.' 이 선언문은 일반 규정에 의해 더욱 정교화된 바, 그 일반 규정에 의하면 국제수로기구의 활동이 국제 정치 문제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지명에 대한 관심>

국제수로기구는 그 창립 연도인 1921년부터 지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세계의 선원들이 해도와 출판물들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도와 해양 관련 출판물 상의 통일성을 추구한데서 이러한 지명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다.

이미 국제수로기구의 설립 이전에 1919년 국제수로회의(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에서 어떠한 바다 또는 대양이 해협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대양들과 바다들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수역 명칭이 Japan Sea로 명명되었다. 1929년에 국제수로국은 특별 간행물 23번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를 출판하였다.

몇몇 해도와 수로 관련 출판물상의 지명들이 라틴 알파벳이 아니다라는 점과 예를 들어, 그리스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지명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관심이 두어졌다. 따라서 1932년에 국제수로기구는 다양한 국가들의 라틴 알파벳으로의 번역 체계에 관한 공식적 원칙들로부터 도출하여 공식적 지명 리스트를 간행하였다.

해저 기록에 관한 항구적인 용어 사용의 필요성이 명칭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는 1924년에 처음으로 국제수로기구의 내부 회람장에서 제기되었다. 국제수로국은 해저 지형에 대한 다양한 언어로 된 표준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항해 방향과 해도 편집에 유용할 것이라는 이탈리아 수로 협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1899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7차 지리학대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ference)에서는 “대양저 지형에 대한 명칭”에 관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1904년의 제8차 국제지리학대회에서는 일련의 정의와 용어들이 채택되었다. 한편 국제수로국은 영어와 불어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가입 국가들에게 배포하였다.

보다 상세한 지도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양과 관련된 해도 및 출판물들이 증가하였다. 정치적 이슈화를 피하려는 국제수로기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비롯된 논쟁들이 존재해 왔다. 논쟁 거리는 대양과 바다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경계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논쟁의 예는 Antarctica the Southern Ocean의 북쪽에 위치한 큰 대양 지역을 남극해로 표기할 것인지 또는 단지 태평양·대서양·인도양의 연장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1932년에 개최된 제3차 국제수로회의에서 미국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 국제수로회의는 남극해에 우선권을 주어 Southern Ocean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대양의 경계가 너무 북쪽에 치우쳐서 확정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실상 현재에도 지명 자체보다는 수역의 경계에 대한 의문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3판(마지막 판)은 1953년에 출판되었다. 그 이후로 회원 국가들이 거의 동의한 1986년의 초안을 포함하여 또 하나의 판을 제작하려는 다양하고도 가치있는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출판의 비정치적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Limits of Oceans and Seas”의 발달과 함께 지명 취급 방침의 개발 및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해 관심이 두어졌다. 이 문제들은 해결되어 국제수로기구의 전문적 결의안으로 간행되었다.

A 4.1 지명 취급에 관한 방침

A 4.2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이는 이 논문의 부록1에 첨부되어 있다. 이 결의안들 중 두 번째에 따르면 해양과 해저 지형·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수로국은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와 협력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가 개최된 1967년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회의에서 작성된 한 결의안은 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지니는 바, 그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결의안 8

“단일 관할권 밖의 지형에 관한 명칭의 취급”

이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이름 및 그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관련 국가들의 지명 관계 기관들이 상충하는 이름 또는 그 적용에 대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지명상임위원회(UN Permanent Commission on Geographical Names)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국제수로국, 국제해양물리학회(IAPO;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hysical Oceanography)에서 행해진 모든 사항들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수로국은 1972년에 시작된 일련의 회담장에서 제재를 취하였으며, 이는 후에 앞에서 본 전문적 결의안 4.1과 4.2가 되었다. 이 토론은 계속 1974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제수로기구의 전문적 결의안 A 4.2의 6항에 의하면, "만약 두 나라 이상이 하나의 특정 지형(예를 들면, 만, 해협, 군도와 같은)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이름을 지닌다면, 관련 당사국들이 그 지형에 대해 단일 명칭을 확정하는데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 국가들이 서로 다른 공식 언어를 지니면서 공유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소축척 해도상에 기술적인 이유로 병기가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는 문제 시되고 있는 두 가지 언어로 된 지명들 모두 해도나 출판물에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English Channel/ La Manche)."

<해저 지형 이름과 지명사전>

대양일반수심해도(GEBCO;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의 발달로 인해 해저 지형에 대해 일관된 명칭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전세계 대양의 수심 측량술에 관한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지형들이 발견되고 정의되어 졌다. 그리고 그 지형들을 일관되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는 해저 지형의 일반용어상의 일관성이며, 둘째는 사용중인 적절한 명칭들은 단일의 국제 방침에 따른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1983년에 개최된 대양일반수심해도를 위한 합동 IOC/IHO 지도위원회(Joint IOC/IHO Guiding Committee for the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GEBCO])의 제9차 회의중에 국제수로국은 GEBCO 제5판과 국제수로기구의 소축척 국제해도시리즈에 나타난 해저 지형의 지명사전을 준비하는 것을 요청 받았다. 국제수로국은 이 지명사전을 개발하였다. 이 지명사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I은 GEBCO와 국제해도시리즈에 나타난 해저 지형에 대한 지명사전이며, Part II는 해저지형 명칭의 표준화이다. 이 지명사전은 지명을 그 경위도 좌표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였다. Part II는 지명 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부록 2 참조), 일반 지형에 대한 용어 정의도 포함하고 있다. 후자는 별도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국제수로기구의 전문적 결의안 A 4.3(부록 3 참조)인 "해저 지형의 명명"에 따르면, 회원국가들이 자국의 해저 지형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해양과학자 및 기타 사람들이 해저 지형에 대해 이름을 붙일 때 앞에서 언급한 지명사전 및 지침을 따를 것을 장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침은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저 지형에 대한 명칭 부여는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바다 지형에 한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침의 E항에 따르면,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나 기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일한 지

형에 대해 두 가지 이름이 적용되어 왔을 때에는 더 오래된 이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한 가지 이름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형에 적용되어 왔을 때에는 먼저 그 이름으로 불렸던 지형이 그 이름을 지녀야만 한다.' 지침은 단지 지침일 뿐이며 어떠한 권한을 지닌 것은 아닌 것 같다.

1924년의 이탈리아 수로학자의 관심에서 비롯된 일반 용어(generic terminology)는 최근에 정치적인 중요성을 상당히 띠게 되었다. 대륙붕에 관한 제76조는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결론>

이 논문은 국제수로기구가 지명 부여에 있어 일관된 방침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과 국제 정치 문제와의 개입 회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수로기구는 지명에 관해 토론할 때 자주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게 된다. 최근에는 대양 개발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제수로기구는 오로지 기술적인 문제에만 관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해양 안전을 위한 독특하고도 일관성 있는 명명법에 대해 동의하는 노력과 같은 순수한 목적의 임무마저도 결국은 인접 바다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국가간 논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